

창립 50돌 ... 2천년 국제대회 유치한

대한지리학회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21세기가 시작되는 해(서기 2000년)에 개최될 주요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29차 국제지리학연합(International Geographic Union: IGU)의 총회와 학술대회(International Geographic Congress: IGC)가 서울로 유치되어 학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시간과 함께 우리 삶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매우 미약한 것 같다. 아니 마치 공기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간에 대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말미암아 생긴 수많은 문제들(환경문제, 지역간 불균등 문제, 생활의 질 문제 등...)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문제해결의 한 핵심으로서 공간, 또는 지역이 자리하고 있음을 서서히 깨닫고 있는 것이다. 세계화라는 말이 이제 생소하지 않게 들리는 요즈음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시대 -지방화- 라는 말 역시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말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은 공간이 우리 삶에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지리학은 삶의 터전인 땅의 속성과 구조 및 그 변화의 과정을 연구하는 기초학문으로 역사가 매우 오래고 깊다. 한 나라의 지리학은 국토와 지역의 질적, 구조적 특성을 밝히고 사회변동과 관련하여 그 역사적 변천과정을 구명하며, 바람직한 모습을 설정, 이에 접근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한다. 민족·국민의 생활이 땅의 모습과 틀이 또한 변화하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지리는 역사, 언어와 함께 국학의 근간을 이루며, 따라서 국민교육의 핵심적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의 지리학

한국에서도 지리학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발전해왔으나, 국토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면서 전통지리학의 맥은 끊어졌다. 사회 일반에서는 아직도 지리학은 나라의 수도나 산과 강의 이름, 지방 특산물과 주요 교통로에 관한 상식을 외우는 정도의 백과사전적 지식분야로 치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지리학의 가장 구체적인 연구대상인 국토의 수난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웃 나라들과 끊임없이 분쟁, 협력, 교류하면서 해외에서 신대륙을 개척하고 식민지를 점령하여 이를 경영하였던 유럽국가들에 있어 지리학이 당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사실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해방되던 해인 1945년 9월 「조선지리학회」로 출범하여 올해 창립 50돌을 맞는 대한지리학회는 회원 8백50명의 대규모 학회로 자리잡았다. 또한 21세기가 열리는 2000년엔 제29차 국제지리학연합 총회와 학술대회를 서울로 유치해 4~5천명의 국내외 지리학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지리학은 그간 꾸준한 연구와 교육 및 사회봉사를 통해, 이제 국토를 연구하는 국학으로, 공간의 일반 이론을 연구하는 지역과학으로, 한국과 세계 여러지역의 특성을 연구하는 지역학으로, 그리고 지역의 개발과 보전을 연구하는 환경과학으로 굳건히 자리잡았다. 선진국의 연구성과를 도입하여 한국적 이론으로 재생산해내고 있으며, 국토계획과 정책부문에서도 점점 더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전국 27개 대학에 지리학과와 지리교육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여기서 배출된 전문인력이 각급 학교를 비롯, 관련 연구소와 관청, 언론, 기업으로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다. 대학에서는 전공교과목 이외에 『지리학개론』이 일반교양과목으로 자리잡았고, 『국토와 환경』, 『국토와 도시』, 『국토와 지역문제』, 『환경과 인간생활』 등 다양한 교양과목이 개발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한국지리』가 필수, 『세계지리』가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국지리학계 대표

대한지리학회(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는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총 망라되어 있는, 한국지리학계를 대표하는 학회이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 11일, 20여명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조선지리학회(朝鮮地理學會)'라는 명칭으로 창립되어 올해로 50년의 역사를 갖는 큰 학회가 되었다. 대한지리학회의 회원은 1995년 3월말 현재 8백50명이며, 그 중 65명이 평생회원이고 단체회원은 60명이다. 대한지리학회는 1963년 학회지 「지리학(地理學)」을 창간하여 지금까지

지 통권 56호를 발간하였다. 1993년부터는 연간 4호를 발행하되, 그 중 마지막 4호는 영자지로 내고 있다. 그 동안 학회가 중심이 되어 펴낸 주요 연구물로는 「한국지명요람(韓國地名要覽)」(1982)과 「한국지지(韓國地誌)」전 4권(1980~1988)을 들 수 있다.

대한지리학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처에 등록된 공식 학술단체로서 '국제지리학연합'에 대해서는 '국제지리학연합 한국위원회(IGU Korean National Committee)'로 한국을 대표한다. 바로 이 '국제지리학연합 한국위원회'가 2000년에 열릴 '국제지리학대회'를 서울로 유치한 주체이며, 따라서 이 대회를 조직하고 개최할 권한과 책임은 대한지리학회에 있다. 학회는 봄, 가을로 연 2회의 총회와 지역연구를 위한 답사를 겸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며, 올해 가을에는 학회창립 50주년을 기념하고 나아가 해방 5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칭)분단이후 한반도 공간구조 변화와 통일 후 공간구조 재편'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10월 20일 ~ 21일 이틀간에 걸쳐 제1부 '분단국토의 현실과 통일국토의 미래상', 제2부 '21세기 한국지리학의 도전', 제3부 '한국지리학 반세기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3주제를 가지고 치뤄질 예정이다.

2천년엔 서울국제지리학대회 개최

『국제지리학연합(IGU)』은 국가 단위의 지리학회들(현재 67개국)을 정회원으로 하는 매머드 국제기구이며, 4년마다 열리는 총회를 겸한 학술대회(ICG)에는 세계 각국 지리학회의 대

표들과 지리학자들이 모여 논문 발표와 토론을 비롯하여 다양한 학술활동을 전개한다. 매 대회의 사이에는 지역회의(Regional Conference)가 열린다. 한국은 1960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19차 총회에서 대한지리학회가 IGU 정회원으로 가입하였으며, 북한은 아직 회원국이 아니다.

지난 1992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7차 총회에는 회원국, 준회원국을 포함하여 90여개국의 지리학회, 3천5백명의 지리학자들이 참석하였고, 발표된 논문만도 1천2백여편에 이르렀다. 학술대회(Congress)에 앞서 열린 Pre-congress에서는 30개 분과위원회(Commissions, Study Groups)에 1천5백여명의 세계 지리학자들이 참석, 9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하였고, 총회에 이은 Post-congress에서는 관련 학술회의 외에 전통대로 10개 전문분야로 구성된 답사반이 1~2주간 미국 전역에 걸쳐 학술답사를 행했다. 워싱턴대회의 명예위원장은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다. 1996년 다음 총회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게 되어있다. 아시아에서는 1968년 인도의 뉴델리, 1980년 일본의 도쿄에 이어 세번째로 서울에서 열리는 셈이다.

1990년 8월 9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6차 국제지리학회 총회는 2000년 제29차 국제지리학회 개최지를 서울로 결정하였다. 한국은 독일과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인 끝에, 최종 결선투표에서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 당시 독일은 미국을 위시한 구미 선진국들과 연대한데 비해, 한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

의 지지를 모으는데 주력하였고, 이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립국가연합(CIS)의 지원이 힘이 되었다.

한국지리학의 도약

2000년 서울 국제지리학대회에는 역대 대회 중 가장 많은 지리학자들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식민지 지배와 뒤이은 분단 및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의 도약과 민주화를 성취한 '기적의 나라'로 인식되어 관심이 큰 데다가, 최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아시아·태평양시대가 개막되고 있고, 냉전구도의 청산과 함께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등, 세계 지리학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크게 높아져 있다. 1980년의 동경대회 이후 매년 3백~5백여명의 참가자가 늘어났고, 지난 워싱턴대회에는 3천5백여명의 지리학자가 참여한 것을 토대로 추정할 때, 2000년 서울대회에는 4천~5천명의 국내의 지리학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례대로 행하게 될 공식 학술답사에는 10개 안팎의 코스에 1천여명이 참가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도 가족, 친지와 더불어 개인적인 답사 및 관광여행을 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답사코스는 남한에 국한시키기보다는 북한 및 인접국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적인 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 학계는 이러한 큰 학술대회를 치루어 본 경험이 사실 전무하다. 지금까지 가장 규모가 컸던 국제학술행사는 1987년의 '태평양과학대회(Pacific Science Congress)'로 약 1천2백명의 국내외 학자가 참가하였다. 국내 학계에도 아직은 저변이 넓지 못

한 편인 지리학계가 이 대회를 원만히 치뤄내기 위해서는 학회 구성원 전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정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업계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최대의 과제는 주최국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학술연구의 노력을 결집시키고, 연구성과들을 집대성하여 보여줄 거리를 장만하며, 국제학술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배양하는 일이다. 다음으로는 이 대회의 준비 및 개최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워싱턴대회에서는 총 3백50만불의 경비가 소요되었는데, 그 중 40%를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40%를 민간기업 기부금으로, 나머지 20%를 참가자 등록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였다고 한다. 당장 급한 것은 약 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조직위원회의 활동경비를 마련하는 일이다. 대한지리학회회는 93년 총회에서 우선 학회 기금에서 2천만원을 조직위원회에 이관하고, 1천만원을 차용해 주기로 하였다.

2000년 국제지리학대회 서울 유치는 몇가지 면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첫째, 세기의 전환점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개최를 원한 주요한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함으로써 국제관계, 특히 지금까지 미진하였던 학술부문의 국제교류에 있어 하나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 더구나, 지역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국학분야로 일체의 탄압을 받아 현대과학적 방법의 도입이 늦었던 한국 지리학이 이제 세계의 지리학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모을 만큼 성장했다는 것은, 어느모로 보나 우리 학

계의 큰 성과라고 하겠다.

둘째, 이 대회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된다. 국제지리학대회에서는 세계 여러나라의 지리학자들이 모여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현지답사를 행하기 때문에 한국의 현실과 비전을 세계에 널리, 그리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 이는 정부가 해외공관을 통해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당당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셋째, 한국지리학의 발전에 좋은 전기가 마련된다. 2000년 서울 국제지리학대회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국토환경의 실상과 국토공간의 이용 및 보전을 둘러싼 우리네 태도를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다가오는 21세기의 민족생활공간을 내다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국제지리학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지리학계는 대회의 개최를 통해 북한 지리학과 교류, 협력하게 되면 남북한간의 학술교류에 물꼬가 트일 수도 있다. 특히, 현 학회가 구상하는대로, 학술답사 코스에 북한과 만주일대까지 포함시키는 계획이 성사되면 그 준비와 시행과정에서 통일 노력에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대한지리학회는 우리 삶의 터전인 국토공간의 속성과 그 변화과정을 밝힘으로써 올바른 국토상을 정립하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이에 접근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함과 아울러, 2000년 세계지리학대회를 통하여 한국지리학, 나아가 한국 학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李熙悅 <대한지리학회 총무부장/
부산대 사범대 지리교육과 교수>